글과 사진 박연숙 | 본지 기자 |

삶의 의미 찾아 떠난 10년 간의 여정

김 성 진 前 결핵연구원장

몇 년 전 국내 한 매체에 김성진 전 결핵연구원장의 중국에서의 활약상이 소개된 적이 있다. 아니 활약상 정도가 아니라 중국에서 김 전 원장은 유명인사다. 중국의 매체들은 "중국을 감동시킨 한국 의사", "한국에서 온 노먼 베쑨" 이라 칭하며 그를 앞 다투어 소개했다. 2008년에는 "칭다오를 감동시킨 10대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때 결핵연구원장으로 우리나라 결핵퇴치사업에 큰 몫을 했던 분이 중국에서 그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셨다는 점이 자랑스럽고, 반가운 마음이랄까? 국내에 들어오시면 꼭 한 번 인터뷰를 요청 드리리라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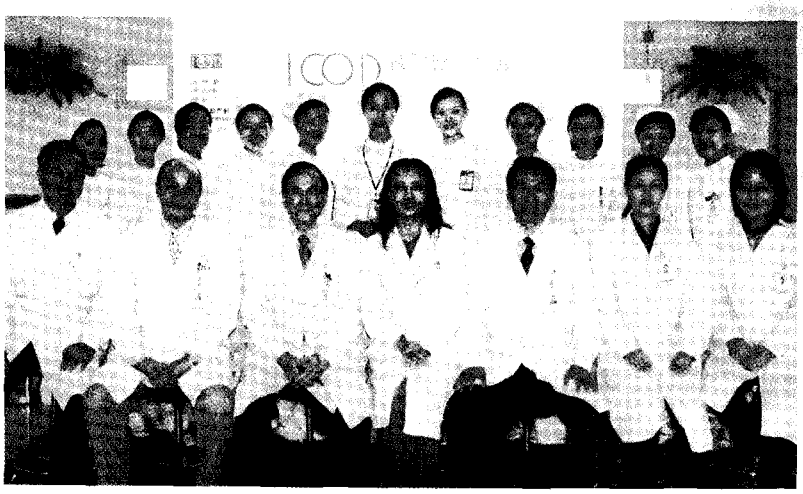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에서의 10년,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장, 부산침례병원장, 결핵 및 호흡기학회장 등을 지내며 1999년 의사로써 남부럽지 않은 정년을 마친 김 원장은 일을 그만두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쉬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쉬어보니 '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다고.

'그래, 그렇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한 번 해보자,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해보자!' 하는 결심을 했을 무렵 중국 산동성 정부에서 결핵 고문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다. 이렇게 중국행을 택하게 된 것이 2000년. 처음 중국으로 떠날 때는 그 여정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중국이 워낙 의료수준이 낮은 데다, 우리나라가 결핵관리에 성공한 국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 같다"며 겸손해하는 김 전 원장.

농촌진료 팀을 꾸려 봉사활동을 하던 도중, 운명의 한 환자를 만나게 된다. 중증 중에서도 중증인 이 폐결핵환자는 폐결핵 뿐 아니라 뇌수막염까지 앓고 있었는데 병원 측으로부터 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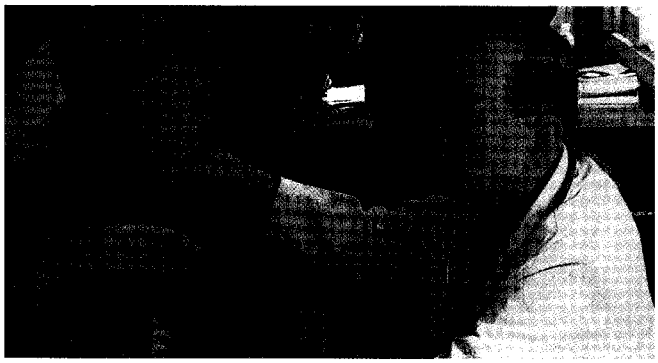
청도시 시립병원에 국제클리닉을 개설하여 낯선 땅에서 마땅히 갈 병원을 찾지 못했던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은 국제클리닉 직원들과 함께 한 모습으로 첫번째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김성진 원장.

원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한국인 의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안고 김 원장을 찾아온 환자의 상황은 한마디로 처참했다. 상황이 안 좋긴 해도 포기상태까지는 아니었지만 결정적으로 환자에게는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돈이 없었다. 환자의 처지가 너무 딱해 그 곳 원장에게 "병원비는 책임지고 내줄 테니 돈 걱정 하지 말고 치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침 가지고 있던 500불을 건네며, "이걸로 모자라면 병원에서도 좀 깎으라"며 다음에 또 오겠노라고 약속했다.

한 달 후 다시 환자를 찾았더니,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했다고 한다. 결핵은 한 번 치료 시작하면 최소 6개월인데, 증증 폐결핵환자가 한 달만에 퇴원을 하다니……. 그 와중에 환자와 가족, 동네 사람들은 '한국 의사 선생님 오셨다' 며 깃발까지 만들어 병원을 찾아왔다.

시끌벅적한 환영에 대한 화답은 "당신 다 나은 거 아니다. 당장 입원하라"는 거였다. 약값을 더 주고 오려는데 병원 측에서는 "이제는 병원 직원들이 돈을 모아 치료하겠다"며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몇 달 후 환자를 다시 찾았을 땐 눈에 띄게 호전된 상태였다.

이렇게 중국에서 맺은 한 환자와의 인연으로 김 원장은 1년 정도를 계획하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퇴직금 다 털어 중국으로 건너왔다.



김성진 원장의 활약상이 중국 공보처에서 발행한 책자에 소개되었다. 사진은 진료에 한창인 김성진 원장의 모습.

중국에는 결핵환자가 무척 많았다. 일일이 환자를 보기보다 의사교육과 강의를 하고 팀을 꾸려 시골 환자들 진료에 나섰다. 외국인은 면허가 없어 진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기현 결핵병방치소 명예소장으로 활동을 했다.

처음 시작은 너무나도 지저분했던 방치소 내부를 깨끗하게 수리하는 일. 페인트를 칠하고 간단히 수리를 마치니 그럭저럭 깨끗해졌다. 그렇게 환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방치소에는 조금씩 환자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TV와 언론에 조금씩 김 전 원장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성 정부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산동성 결핵공제중심은 일종의 결핵관리센터 같은 곳인데, 그곳 고문으로 위촉되어 매일같이 수십 명의 환자를 보고 외부 강의를 다녔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니 몸이 너무 고되었다고. 이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김 원장이 거주하고 있던 위해시에서 일하는 곳까지 고속버스로 6시간이 걸렸는데, 위해시는 무척 덥고도 추운 곳이었다. 더군다나 한국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게 당연했다. 그만두겠다는 김원장의 말에 오히려 청도시 질병공제중심으로 갈 것을 제안해왔다. 당시 청도에는 4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지금은 무려 1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 한국인도 많고 영사관도 있고 하니 생활하기가 훨씬 나을 것이라는게 제안의 이유였다.

청도시 질병공제중심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진료가 시작됐다. 그러던 중 시와 협의하에 한국인 의사 3인을 초청하여 시립병원에 국제클리닉을 개설했다. 갈 만한 병원이 없어 애태우던 한국인들은 김 원장이 왔다는 소식에 시립병원으로 몰려들었고, 바쁜 나날이 지속되었다. 그 때 다시 밀려온 고민이 처음 중국에 올 때의 그 '의미'를 찾고 있는가 였다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시립병원 일도 그만두었다.

처음 중국에 왔을 때 만난 환자와 소박했던 사람들, 정말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다시 농촌진료를 떠나리라 생각하면서…….

농촌 진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국인 의사가 왜 우리를 무료로 진료해주는가' 라는 의심어린 시선이었다. 중국에는 '봉사' 라는 의미의 단어 자체가 없었다. 정부에서조차 그런 호의를 좋아하지 않았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늘 죄짓는 느낌을 접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던 중 2007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영사관과 의논을 했다. 제도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는 결론을 내리고 홍십자회(우리나라의 적십자사) 중한의료단을 설립했다. 그때부터 단장의 이름으로 의료단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농촌진료 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2005년부터 팀을 꾸려 다녔지만, 2007년 홍십자회 한중의료봉사단 창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봉사에 나설 수 있었다.

홍십자회 한중의료봉사단은 그의 의지를 정부가 받아들여 조직된 단체로, 2009년 봉사단을 떠날 때까지 한국인으로써 수많은 중국인들의 찬사와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와 과도한 관심은 김 원장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이제 정말로 일을 접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무엇보다 나를 따라 10년 동안 객지생활을 해준 집사람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집사람이 좀 아프고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지. 의사로서 정말 보람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제 남은 생은 아내를 위해 살 작정입니다."

중국에서 보낸 10년간의 이야기가 김 원장의 입을 통해 전해지자 담담히, 그러나 단숨에 읽혀지는 한 권의 소설과도 같이 전해져왔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보다도 감동이었다.

돌이켜보니 "많이 받은 것보다 마음 편하다"는 한 마디가 뇌리에 진한 여운으로 남는 만남이었다. ✝